

순천으로 U턴한 청년들이 농촌의 청년 정착 돕는다

순천시, '청순농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공고 선정 2년간 총 사업비 3억원 지원...청년들 멘토 될 예정

순천시는 순천시 별량면의 청년단체 '청순농부'가 2023년 전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에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년간 총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전남 17개 시·군의 34개 청년단체 중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5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청년단체 '청순농부'는 청년 순천농부라는 의미로 고향으로 U턴한 청년 등 7명이 구성된 단체로 '오늘도파밍' 청년마을을 조성하여 농업과 청년과 지역주민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로 청년 농업인의 매력을 알려 청년들

이 농업을 직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농촌에 정착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의 멘토가 되어줄 예정이다.

내달부터 별량면을 거점으로 외지 청년 정착을 위한 '파트타임반', '풀타임반', 미리 청년(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방과후반' 등 지역 주민과 어우러진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별량면 소재 청년 거점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시 나육현 청년정책과장은 "일곱 빛깔의 특색 있는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순농부의 차별화로 청순농부가 주체가 되어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청년마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전남형 청년마을로 2



개소가 선정되어 장천동 '천천히마을'과 조곡동 '브롱브롱마을'을 운영하여 지역을 알아가는 순천살이 체험, 제로웨이스트 활동, 수제맥주 제조 교육 등 체험 및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시, '청년도전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만19~39세 청년창업자 13명

여수시가 '청년도전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내달 1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도전 창업 지원사업'은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지만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예비 청년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13명을 선발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18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거나 선정된 후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여수시로 전입이 가능해야 한다. 선정자는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차등 창업지원금과 경영·마케팅·회계·세무 등의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받게 된다.

희망자는 오는 5월 12일 까지 이메일(jncreative@ccei.kr)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시는 꼼뜨락물(중앙동 소재) 활성화를 위해 꼼뜨락물 입점 창업전형을 신설, 일반전형과 구분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수=김현근기자

'김 주산지' 고흥에서 내일 '제12회 김의 날 행사' 개최

고흥군은 오는 27일 박지성공설운동장에서 전국 16개 시·군 김 생산 어업인, 수출업체, 관계 기관단체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김의 날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김의 날' 행사는 정월 대보름에 김과 함께 복을 써먹는다는 '김 복쌈' 전통 풍습을 이어가는 의미로 매년 음력 1월 15일을 '김의 날'로 지정해 2011년부터 기념행사가 개최되어 왔으나, 그 시기가 김 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에 가장 바쁜 시기인 점을 감안해 이번 행사는 4월 27일로 결정해 추진하게 됐다.

(사)한국김산업연합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지회가 주관하는 '김의 날' 기념행사는 전국에서 모인 김 생산어업인, 지역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한마당 잔치로 풍성하게 열린다.

이날 행사는 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고흥 김 쿠키쇼'를 시작으로 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 김의 날 퍼포먼스, 인기가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지며, 부대행사로 '전국 으뜸김 탐10' 전시, 대한민국 김 사진 및 기자제 전시회, 고흥 농수특산물 홍보장터도 진행된다.

특히,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인기가수 공연에는 김희재, 금잔디, 정다한, 윤태화, 허찬미, 트롯보이즈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으로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주말엔 국사봉철쭉축제+옥곡오일장 구경가요"

오는 29~30일 이틀간 제15회 '백운산국사봉철쭉축제' 개최



광양시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제15회 백운산국사봉철쭉축제를 즐기고 옥곡5일장을 구경하는 여행코스를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백운산 국사봉 철쭉이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 백운산국사봉철쭉축제 개막일인 29일은 옥곡 5일장이 열리는 날이어서 축제와 장날 구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개최되는 제15회 백

운산국사봉철쭉축제는 옥곡면사무소 옆 옥구술건강문화센터 광장 주무대와 국사봉 정상 특설무대 등 두 군데서 이뤄져 관광객과 등산객들의 즐거움도 두 배가 될 전망이다.

축제 첫날인 29일은 오전 10시부터 옥구술건강문화센터 주무대를 중심으로 난타, 가요제 예심과 본심, 광양시립합창단공연, 개막식, 지역가수 공연이 이어지고 국사봉 정상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버스킹이 진행된다.

광양=김현근기자

둘째 날에는 오전 9시부터 국사봉 철쭉로 등반대회, 우리지역알기 OX퀴즈, 국사봉산 상음악회, 관광객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등이 국사봉 정상과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특히, 29일은 축제장과 인접한 옥곡오일장이 열리는 날이어서 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정과 흥이 넘치는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62년 개장해 60년 전통을 이어가는 옥곡시장은 4일과 9일에 열리는 오일장으로 취나물, 감오징어 등 신선한 지역 산물과 씨앗떡, 소금빵 등 이색 먹거리가 풍성하다.

해발 532m 국사봉은 백운산이 억불봉, 노랭이봉, 대치재를 거쳐 남향한 지맥으로 35ha 철쭉 동산과 4km 이어지는 아름드리 편백숲을 자랑한다.

해마다 4월이면 억불봉을 비롯한 백운산 주능선들은 연둣빛 병풍을 이루고 국사봉엔 연분홍 철쭉이 물감을 짜듯 화사하게 피어난다.

국사봉에는 절벽 위 아슬아슬한 바위를 걸어주는 '권돌바위'가 있는데 그 아래 있었던 국사암을 찾아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원바위로 불리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광양=김현근기자



보성군, '보성 차(茶) 샘플박스' 배포로 차 농가와 공동마케팅

보성군은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리는 제46회 보성다향대축제를 앞두고 전국 카페·호텔·식음업장을 대상으로 선착순 200명에게 '보성 차(茶) 샘플박스'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보성 차(茶) 샘플 박스'는 보성군과 관내 11개 다원이 공동마케팅을 위해 만든 명품 차 구성품이다. 한 박스당 티백 8종 16개, 잎차 4종 12개, 말차 2종 4개가 들어있다.

또한 샘플 박스는 대용량상을 수상한 명인이 만든 차, 전남 차 유가농 명인이 만든 차, 친환경 유가농법을 고수한 전통 차 등 다원의 이야기와 재배방식, 차의 특징 등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현재 차를 활용해 음료 및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식당, 호텔, 전국 카페 등을 대상으로 수령 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은 보성 차(茶) 샘플을 베이스로 사용해 맛과 품질, 가격이 업장과 적합할 경우 참여 농가에 직접 연락해 차를 구매하면 평균 30%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 받을 수 있다.

보성=김순석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